

전남도 해양관광 플랫폼·4계절 거점지역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어촌·어항·섬 잇는 바다둘레길 개발 권역별 맞춤형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본격화

전남도가 도내 해양레저관광의 중간기착지(플랫폼)와 4계절 관광 거점지역을 조성하고, 어촌뉴딜 300 사업지와 어촌·어항·섬 등을 잇는 이동경로인 바다둘레길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일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전국 최고 수준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역별 맞춤형 관광거점 조성 및 특성에 맞는 인프라 조성, 어촌·연안 및 섬 지역 체험·체육형 관광 콘텐츠 강화, 해양레저관광 3대 핵심산업 육성, 교육·체험 확대를 위한 친수문화 정착, 4개 분야로 나눠 '전남 해양

레저관광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맞춤형 관광거점 조성 및 특성에 맞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남 서남해안을 섬·연안·어촌을 연계한 체육형 관광 거점 권역으로 육성한다. 또 2025년까지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계획에 따라 5개의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는 마리나항만 조성 예정지 18개소를 정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해둔 상태다.

어촌·연안 및 섬 지역 체험·체육형 관광 콘텐츠 강화도 추진한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체험하고 머물도록 '가고 싶은 섬'의 특성과 테마를 살려 '남도 명품 섬'으로 만

들고, KTX와 '남도 한바퀴'를 연계한 여행상품 종류를 현재 7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27개 어촌체험마을에 갯벌생물 채취뿐만 아니라 바다해설사와 함께 하는 생태학습이 가미된 어촌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관, 체험활동, 숙박 및 음식 등 부분별 등급화도 추진한다.

해양레저관광 3대 핵심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 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완도에 320억원을 들여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해 건강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수 웅천에는 300억 규모의 거점형 마리나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관광 크루즈 수요에 발맞춰 목포 신항에 10만~15만급 1선석 규모의 크루즈부두를 건설하고, 여수

신항에는 크루즈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1동과 승·하선 시설 등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트, 카약,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목포, 여수, 보성 등 연안 시·군에서 8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해양레저 붐 조성을 위해 바다핀수영대회, 비치발리볼대회 등 7개 전국 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도 개최한다.

180억원 규모의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과 75억원 규모의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공사도 서두르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비교우위 자원인 섬, 갯벌, 긴 해안선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삼향읍 남악신도시, 남악읍으로 바뀌나

무안군, 삼향·남악읍 분리 행정구역 조정안 제출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군 삼향읍에 속했던 남악리(남악신도시)가 행정구역상 남악읍으로 분리될 지 주목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이 최근 삼향읍 남악리를 분리, 삼향·남악읍으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읍은 인구 2만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해당 지역의 시가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40% 이상일 것과 상업·공업, 그외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맞춰야 한다.

무안군은 삼향읍의 경우 인구가 2만명(지난해 말 기준 3만8735명)을 넘어섰고 해당지역 시가지지를 구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84.8%(3만2906명)에 달하는 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82.2%) 등을 고려하면 현

행 지방자치법(7조 3)의 '읍 설치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삼향읍 남악리(남악신도시)는 농업 중심이었던 경제 구조가 도청을 비롯, 4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목포·영암군 민 등이 이주하면서 신도시 형태로 바뀌었다.

무안군은 여기에 남악신도시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하고 군의회도 찬성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읍 설치 신청서를 냈다.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뤄지면 무안군은 9개 읍·면에서 10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전남도도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가 늘고, 현재 출장소 체제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삼향읍 내 남악신도시를 분리, 남악읍을 설치해 행정편리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하반기 행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무안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테크노파크·지역 대학 '산학연계 농공단지 개발' 지원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테크노파크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나선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농공단지에는 총 68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산단의 64.8%를 차지해 전국 평균(39.1%)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1323개 기업을 살펴보면 기술경쟁력이나 사업화 역량이 낮아 매출과 생산성 등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전남도가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학 인력과 기술·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농공단지 중소기업 9개사에 도비 1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상용화와 응용기술 개발을 도와 기업 역량을 강화시켜줄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사회 20일 여수 엠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사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도패스' 전남 가맹점 수 75곳 불과

나주·곡성 등 11곳은 없어 대표 관광지와 계약 안 맺어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 교통, 관광시설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남도패스' 가맹점 수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올 들어서만 7000장 이상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관광 할인카

드인 '남도패스'의 전남지역 가맹점은 11개 시·군 75곳(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22개 시·군 575곳 이상의 가맹점 유치를 목표로 세운 점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남도패스'는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교통, 관광시설 통합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결제형 선불카드다.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 숙박·교통·관광시설 이용시 최대 60%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이 많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2033장(판매금액 2950만원)에 불과했던 판매량이 올 들어서 7804장(1억3280만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관

공업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나주·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무안·함평·장성·진도·신안 등 전남지역 11개 시·군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로, 남도패스를 구입한 여행객이 진도나 무안, 나주 관광지 등에서는 가맹점이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가맹점이 있는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대표 관광지와는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도수목원, 경도리조트, 한옥호텔, 국립박물관(해양

문화재연구소), 오시아노관광단지 등은 가맹 계약이 맺어지지 않아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시·군별로 가맹점 모집·발굴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토록 요청했다. 시·군별로 직·간접 관리시설인 관광지 등을 우선 가입토록 유도하고 휴양림, 한옥마을 등도 가맹점으로 유치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방문지와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민간 관광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전남지역 남도패스 가맹점을 200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빛그린산단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첫 적용한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건립사업 전반 과정과 성과를 총괄·관리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건립·운영 주체로서 광주시와 상호 협

의 및 총 건립비용의 80%를 부담한다.

또한 광주시는 어린이집이 원활히 건립되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총 건립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빛그린산단 내 부지 2400㎡, 연면적 1425㎡에 총사업비 50억원(국비 4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정원 150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보육문제 해결, 여성 경력단절 예방, 빛그린산단의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도 도시철도 부문 1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도시철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전체 평균 87.92점을 웃도는 89.38점을 획득,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높은 고객만족도를 보였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고객만족역량 향상과 고객 체험형 소통 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시민 특별이벤트를 열어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차별화된 체험 행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진보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국내 최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태양광발전소

부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